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Potted, and Ground Cover Plant
of *Thymus quinquecostatus*.

화단, 분화 및 지피용 백리향 재배 이용

송정섭 | 이학박사

T. 031-290-6140,

songjs@rda.go.kr /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DA)





백리향,

자극을 주면 몸에서 향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허브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밭갈에 물은 향이 백리향 가도 사러지지 않고 계속 풍길 정도로 향이 짙다.

우리 야생화 중 허브식물로 개량된 것이 많지 않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백리향이 아닐까 싶다. 특히 자극을 주면 몸에서 향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허브 분화용(개량 원예종, 골든타임)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꿀풀과의 다년생식물로 전 세계에 50여종이 분포하며 그 대부분이 지중해 연안지방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는 백리향이 있으며 변종으로는 울릉도의 섬백리향이 있다. 영명으로는 thyme이며 허브식물로서는 '타임'이라고 부른다.

형태적 특성

식물체 전체에서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어졌다. 풀과 같은 외모를 가졌으나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옆으로 기는 포복성 낙엽반관목으로 높이는 15~20cm 안팎이다. 건조한 곳으로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의 높은 산정이나 바닷가 바위 곁에서 주로 자란다. 꽃은 여름철인 6~7월에 핀다. 연분홍색이나 때로는 백색의 것도 있는데 잎 겨드랑이에 2~4개씩 가지 끝 부분에서 모여달린다. 씨앗은 9월에 암갈색으로 익는다. 울릉도에 자생하는 것은 섬백리향인데 백리향에 비해 원줄기가 보다 굵고 잎이나 꽃이 다소 커서 구분이 가능하다. 섬백리향은 분포지가 제한되어 있고 생육적지의 감소 또는 남채에 의해 개체군이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이다. 현재 울릉도의 섬백리향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용도

백리향은 밀원식물로 좋고 향기가 나는 허브식물로서도 가치가 크다. 또한 관상용·공업용으로 쓰이고 지면에 낮게 깔리기 때문에 지피식물로 이용하면 좋다. 식용·약용이나 향료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민간에서는 전목을 활혈, 해열, 기관지염, 하혈에 약으로 쓴다.

재배기술

• 번식

씨앗번식, 삽목 및 포기나누기가 가능하지만 주로 삽목번식을 한다. 삽목이 잘 되는 편으로 화분이나 플러그묘판에 직접 삽목해도 뿌리를 잘 내린다. 가을과 겨울을 제외하면 연중 어느 때나 할 수 있다. 씨

앗을 뿌려 번식할 때는 씨앗이 충분히 익은 초가을에 따서 충실한 것들을 골라 바로 뿌리는 것이 좋다. 식물체가 어느 정도 자라면 화분에 심거나 화단에 15~20cm 간격으로 심는다.

재배관리

백리향은 그늘과 습기에는 무척 약하다. 따라서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하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좋다. 백리향은 식물체가 무성하게 자라 통기가 불량하면 잎이나 줄기가 녹아 죽는 수가 많으므로 3~5년마다 한번씩 솎아주거나 이식하여 포기사이를 넓혀주는 것이 좋다. 화분에 심을 때는 깊이가 얕더라도 면적이 넓은 접시 모양의 화분에 심어 관리하는 것이 보기가 좋다.

비료주기

정원이나 화단에 심을 때는 심기 전 부엽퇴비를 살포하여 주거나 유기질 비료를 땅속에 넣어주고 생육 중에는 4종 복비인 하이포넥스, 북살, 비왕 등의 액체비료를 1,000~1,500배로 희석 월 2~3회 엽면에 뿌려준다. 화분에 기를 때는 완효성의 덩어리 비료나 유기질비료를 분의 크기에 따라 적당량 올려 둔다.

병충해 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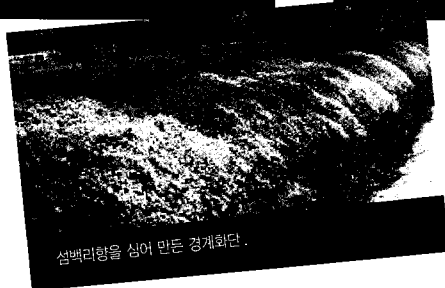
백리향은 아주 심한 병해는 없으나 지나치게 번성하게 되면 포기사이가 습해져 부패되므로 너무 습하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하고,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진딧물이나 응애가 생길 수 있다. 🌿



화단의 지피용으로 이용되는 모습



가을이 되면 잎은 서서히 단단해지면서 월동준비에 들어간다.



삼백리향을 심어 만든 경계화단.